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소비자는



보도	2026.10.14.(수) 조간	배포	2026.10.13.(화)
담당부서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전자공시팀	책임자	국 장 권영발 (02-3145-8100)
		담당자	팀 장 김대일 (02-3145-8475)
			팀 장 김현부 (02-3145-8610)

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손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Open DART 개선 및 XBRL 텍사노미 정비를 추진합니다.

- ① Open DART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안건 검토 및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XBRL* 재무공시 텍사노미(분류체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 데이터 개방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재무공시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이 용이하도록 구조화된 데이터로 수집·유통하기 위한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그간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문 DART 및 Open DART 구축, XBRL 주석 재무공시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주주총회 표결결과 정보제공 확대('26.3.1.), 주총 표결결과 보수-성과 간 연계 등 임원 보수 공시 강화('26.5.1.),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강화('26.6.30.) 등

**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7년 사업연도('28.3월 공시)까지 단계적 확대 중

공시정보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분석을 지원하는 한편, 재무제표 본문과 함께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주석 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Open DART 개선 및 XBRL 텍사노미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Open DART 등을 통한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및 조회 편의성 제고

상장회사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 개최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시간적 제약으로 주총 안건을 충실히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총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서류를 대상으로 제공하여 온 Open DART 서비스*를 주주총회 관련 공시서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DART에서 공시서류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주요 공시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시정보 개방서비스(20.4월 본격 가동)로 ①공시 원문 데이터에 대한 오픈 API 제공 및 ②웹 브라우저를 통한 간편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를 지원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1% 이하 소유 주주에게는 개별 통지에 갈음하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고 가능(상법 제542조의4 제1항)

특히, Open DART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기본정보* 및 주총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의 관심이 높고 상정 건수가 많은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주주총회 일시·장소, 의결권기준일, 전자주총 개최 여부,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

** 전체 주총 안건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분류(대분류, 중분류)하고 의안별 개요를 제공

*** 이사 등의 선임,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배당) 등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주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안건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한편, 주총 일정의 효율적 관리나 의결권 행사 전략 수립 등에도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DART 홈페이지에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조회와 관련하여서도 그간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DART 주총 소집공고에서 특정 안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건별 목차**를 신설하고 DART 공시목록에서 총회 종류(정기, 임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목을 구분**[→ 주주총회소집공고(정기) 및 주주총회소집공고(임시)]하는 방안 등

Open DART 등 개선사항은 '27년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시스템 개발 및 서식 정비 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에서 기관투자자 등 공시이용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26.9월 중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예탁결제원, ESG기준원, 상장회사 협의회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참고) Open DART 등을 통한 주총 안건분석 및 조회 편의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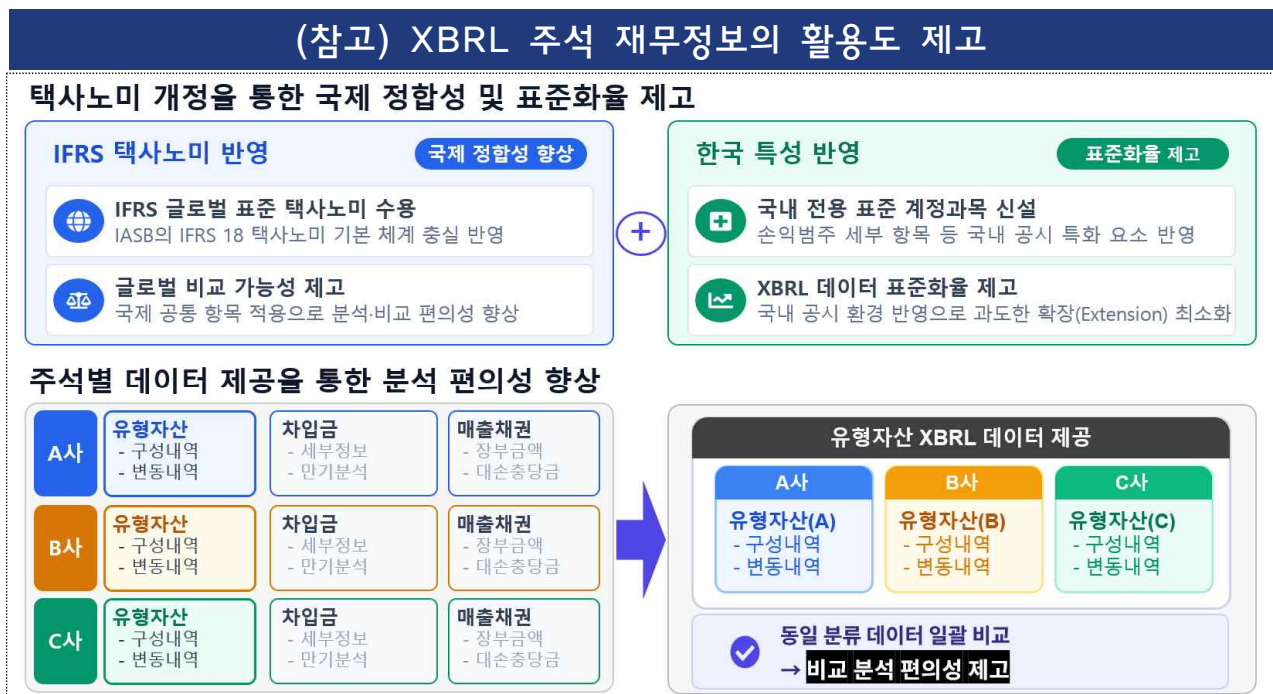


[2] XBRL 주식 재무정보의 활용도 제고

XBRL은 기계 판독(Machine-Readable)에 최적화된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로, 기존 공시 방법(HTML, PDF 등) 대비 정보이용자가 재무 데이터를 쉽게 확보·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에 우리원은 '23사업연도부터 XBRL 재무공시 대상을 재무제표 본문에서 상장사 주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Open DART(API, 공시 정보활용마당)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XBRL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7사업연도부터는 K-IFRS 제1118호(손익계산서 개정 등) 도입으로, XBRL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원은 택사노미를 정비하여 재무공시 데이터의 비교·분석 편의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변화하여 재무정보의 시장 활용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택사노미 정비와 관련하여, IFRS 재단(Foundation)의 IFRS 18 국제표준 택사노미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되, 국내 고유의 공시 환경을 반영한 세부 요소를 보완하여 표준화율도 함께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사·중복되는 항목 등을 정비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재무공시 데이터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XBRL 주식 데이터는 개별 기업 단위이거나 전체 기업의 대용량 방식으로 제공되어, 필요한 특정 항목 중심의 정밀 분석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유형자산 등 주요 주식별 데이터를 Open DART(API)로 순차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해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K-IFRS 제1118호 공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26년 중 신규 XBRL 택사노미를 공개하고, '27년 중 주요 주식별 데이터를 분할 제공하여 정보 이용자의 데이터 분석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가 투자자와 기업이 소통하는 수단이며 DART가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정보를 획득하는 원천인 점을 고려하여 공시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충실히 제공되고 투자 판단 등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는 공시서식을 통해 구체화되는 만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취지가 기업 경영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공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재무정보의 효율적인 비교·분석을 지원하는 XBRL 정보가 자본시장 내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각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시정보 이용자들이 AI를 활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공시정보를 검색·분석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인(AI-Ready) 공시데이터 생성·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도 공공데이터를 AI에 적합하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행정안전부, '26.3월) 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